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도민사회 혼란 가중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밤새며 상황 지켜봐... 정치권 행보에도 관심 밤잠을 설친 도민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한밤중에 이게 웬 날벼락이나 싶었어요. 계엄령이 아니라 전쟁이라도 났나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도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출근 준비도 마다하고 사태 파악부터 했다.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한편에 마련된 TV화면에는 비상계

엄령 선포부터 해제, 향후 정치권의 행보를 담은 소식이 방송되고 있었다. 관광객과 도민들은 방송 화면을 두 눈에 담으면서 입으로는 간담의 사태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30대 도민 김모 씨는 “태국 여행을 잘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계엄령 관련 뉴스를 봤다”면서 “불안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 사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상공에 헬기가 떠다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 가슴을 더욱 쫓

였다”며 “비행기표를 바꿀까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예 한국에도 오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아이들과 급히 비행기를 탔다. 타고 오는 내내 혹시라도 착륙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불안했다”고 했다.

50대 관광객 김 모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나 싶었다”면서 “계엄령이 해제됐다고 하니 별다른 고민 없이 제주를 오긴 왔는데 이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비슷한 시각 제주버스터미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TV 앞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계엄령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의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80대 도민 김 모씨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TV에서 계엄령 선포 속보가 나왔다”며 “그 뒤로 잠을 못 이뤘다. 몇 시간 뒤 해제됐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욕이 다 나왔다”고 말했다.

60대 김 모씨는 “출근길에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광주 5·18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계엄령 소식을 한참 뒤에 들었는데 그때와 같은 상황에 놀란 가슴을 달래야 했다”고 토로했다.

70대 양 모씨는 “세상이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었다”며 씩씩한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도, 4일 전시관 개관 항일운동 발상지 입구에

제주 최초의 항일운동 역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4일 개관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전시관’이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보다 앞서 있다. 1918년 10월,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일제 침략과 수탈에 맞섰다. 제주에서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무

장 항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시관은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입구에 들어섰다.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 127㎡ 규모로 조성됐다.

모두 3개로 구성된 전시실에선 법정사 항일운동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시 기록과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인터뷰가 당시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게 한다. 전시실에선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불씨’를 관람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2025년부터 도내 공동주택 대상 품질검사

제주에서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 품질검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하자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품질검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 교수 등 모두 9개 분야 20명으로 구성된다.

검검 대상은 내년부터 사업시행 계획 승인 받은 뒤 신축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제주도는

입주예정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과 3세대 이상 전유 부분의 공사 상태를 중심으로 살피게 된다.

검검을 마친 품질검검단은 5일 이내에 도시사와 행정시장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후 행정시장은 즉시 사업주체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한다. 사업주체는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등의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김지은기자

제주도 지방도 미끄럼방지 전면 보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전면 보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미끄럼 방지시설이 낡은 도로 9만3000여㎡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도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확인한 구간이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로의 미끄럼 저항이 부족하거나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구간에 특수 재료를 추가하거나 표면을 가공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될 경우 제 역할을 못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는 교통량이 많거나 마모가 심한 교차로와 내리막

구간을 중심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입해 8000㎡를 우선 보수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노후화 구간을 전면 보수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회원들이 4일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를 열고 있다. 강희만기자

동절기 연근해 어선 점검 제주시, 사고 이력 어선 등

제주시는 동절기 연근해 어선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안 수산 자원 감소로 인한 연근해 어선의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고 있고 조업 중 어선 화재, 선체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동절기를 사고 발생 취약 시기로 보고 오는 13일까지 안전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선적 연근해 어선 중 최근 3년간 안전 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간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구명·소화 장비 취약 어선 등 1093척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들 어선에 대해 인명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구비, 주요 장비 작동 상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출입항 신고 관리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동절기 연근해 어선 안전 점검을 통해 해양 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연근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통령 탄핵 촉구 불빛 제주시 켜졌다

어제 제주시청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도민대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불빛이 제주에서 다시 켜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본부, 진보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21개 정당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요구 제주도민대회’를 열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도 배치됐다.

대회가 시작된 오후 7시쯤에는 제주행동이 예상했던 300명을 훌쩍

넘겨 900여 명의 시민이 자리를 메웠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어두워진 길거리를 밝혔다. 이번에는 이전의 촛불 집회와는 달리 스마트 폰 플래시가 활용됐다.

발언대에 선 임기환 민주노동당 제주본부장은 “제주도민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반란 수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민주평등의 새로운 세상, 한국사회 대전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외쳤다.

김채현기자

경축 제30회 자랑스러운 읍민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수상자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상	본상 (사회봉사)	본상 (효행)	본상 (농어촌진흥)	본상 (사책추진)	본상 (환경보호)	본상 (문화예술체육)	본상 (다문화가정)
김 경 출 (하귀2리)	애월읍새마을부녀회 (회장 강미숙)	강 경 신 (고내리)	강 길 현 (수산리)	신 영 필 (애월읍체육회)	임 재 형 (자연보호애월읍회)	양 호 근 (애월읍연합청년회)	여 은 영 (용흥리)

애월읍체육회·애월농협·하귀농협·자랑스러운 읍민대상 운영위원회 일동

애월읍체육회 회장 김기완	애월농협 조합장 김병수	하귀농협 조합장 강병진	주민자치위원장 고정학
이단협의회 회장 문동원	대한노인회 애월읍분회장 박정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박철홍	새마을부녀회 회장 강미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연합청년회 회장 하명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조성익	농촌지도자 애월읍회장 고영탁
농업경영인애월읍회 회장 안철수	애월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성진		